

서울주보

제2593호
2026년 1월 1일(가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임당송 |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제1독서 | 민수 6,22-27

화답송 | 시편 67(66),2-3.5.6과 8(◎ 2ㄱ)

-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격레들을 이끄시니, 격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

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 갈라 4,4-7

복음환호송 | 히브 1,1-2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음 | 루카 2,16-21

영성체송 |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향하여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에도 많은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이 오랜 인사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소 주님 부활 대축일 저녁에 하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저 평화를 향한 바람이 아니라, 이 인사를 받는 이들에게 참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결과적으로 모든 현실에도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 곧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겸손하고 인내하는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평화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며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품어 안으시는 착한 목자이신(요한 10,11,16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혼존, 그분의 선물과 그분의 승리는 인내로운 수많은 중인을 통하여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일이 이 세상에서 계속되고 우리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더욱 선명히 빛나게 됩니다.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빛을 보고 그 빛을 믿어야 합니다. 평화는 폭력에 저항하고 폭력을 이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제3차 세계 대전’이라고 부르신 것들 한가운데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이들은 이러한 확신에 힘입어 계속해서 어둠의 확산에 저항하고 밤의 파수꾼처럼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화는 우리의 선택을 이끌고 밝히는 원칙입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이 두려움과 낙담 속에 모여 있는 곳에 오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는 계속해서 그분 중인들의 목소리와 얼굴을 통해서 문과 장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무기를 내려놓은 평화

복음서들은 제자들을 힘들게 하였던 것이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비폭력적인 응답은 그들 모두가, 그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의를 제기하였던 길입니다. 그러나 스승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이 길을 따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무력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이들에게 단호히 되풀이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요한 18,11; 마태 26,52 참조)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먼 이상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평화가

부정되거나 심지어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



쟁이 일어나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정당방위의 원칙을 훨씬 넘어서는 이러한 대립의 논리가 이제 세계 정치를 지배하며 날이 갈수록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 지도자가 군비 증액을 거듭 촉구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내리는 것을 외부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제시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4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하여 지난 10년간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총 2조 7,180억 달러(전 세계 GDP의 2.5%)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더욱이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대응은 재무장을 위한 막대한 경제적 투자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의 전환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20세기에 힘들게 얻은 교훈을 지키고 수많은 희생자를 잊지 않는 기억의 문화를 증진하기보다 학교와 대학교, 언론 매체에서 위기의식을 퍼뜨리고 무장 방어와 안보의 개념만 부추기는 조직적인 선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인공 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무력 분쟁의 비극을 더욱 악화시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정치 군사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비판적 사고를 일깨워야 합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그러한 깨달음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계속 본받도록 부름받는 이야기로서,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곧 열린 마음과 복음적 겸손에서 비롯되는 평화를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선은 무기를 내려놓게 합니다. 성 요한 23세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전쟁 목적을 위한 군비 경쟁의 중지와 그 실제적 축소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 해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로써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인류를 위하여 종교가 해야 하는 본질적인 역할은 생각과 말까지도 무기로 삼고자 하는 유혹이 날로 자라나지 않게 막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결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음을 목격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의 표현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끌어내려지고 국수주의를 축복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과 무장 투쟁을 정당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무엇보다 삶의 증언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이러한 형태의 신성 모독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국제적 힘의 균형이 깨지는 가운데, 정의와 인간 존엄성의 위기는 경종을 울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세계화의] 원동력이 인간 의지와는 동떨어진 알 수 없는 비인간적 익명의 힘이나 구조의 산물인 양” “숙명론적으로 보는 시각”의 확산에 맞서야 합니다. 시민 사회 안에서 자기 인식, 책임 있는 연대의 형태들, 비폭력적인 참여의 경험, 크고 작은 수준에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을 북돋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희년이 맺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희년은 수많은 사람이 순례자로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마음과 정신과 삶의 무장 해제를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분명 이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 전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 참조



시노드의 길을 계속 걸으며, 새 시대의 희망을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평화와
희망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커다란 혼란을 극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온 세계가 감탄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보여준 책임 있는 행동과 참여의 결실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서, 언제나 국민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고, 사회적 유대를 이루며, 공동선을 위해 충실히 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은, 지난 몇 해 동안 걸어온 ‘시노드 교회’의 여정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1년 앞둔 지금, 우리는 이 여정을 단지 일부 청년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모든 세

대 모든 이를 위한 전 국민적 축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여정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며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총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끄시며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시노드 여정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일상과 세상 안에서 더욱 생생히 증거되고 드러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 안에 충만히 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순택

그림 해설

촛불 | 담백한 수묵화에 빨간 낙관을 찍듯이, 여명 속의 성상 앞에 촛불 하나 놓습니다. ‘어머니!’ 하고 부르면, 나도 어미닭의 깃을 파고든 병아리가 되어, 당신의 자녀이고 형제입니다. 기도로 밝히는 새날, 이윽고 사물의 윤곽들이 모습을 드러내면, 정주의 생명들이 색색의 옷을 챙겨 입겠지요. 시작의 시작이요, 마침의 마침인 거룩한 사랑이 내 촛불의 가물거림에 맡겨져 시간의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